

형사과 근무 경찰관들의 외상사건에 대한 실태 연구*

이 경 화

인천대안교육센터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경찰관들 중 외상사건의 접촉 빈도가 높은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외상의 유형과 충격정도를 살펴보고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관리 방안과 심리적 지원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지방경찰청 형사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상 경험하는 외상직무 리스트 및 자기보고식 질 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18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경찰관들은 일차외상에서부터 이차외상 경험 등 다양한 형태의 외상에 노출되고 있고 외상의 충격정도에 대해 12.2%가 강한 충격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외상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조직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요구된다.

주요어 : 경찰관, 외상스트레스, 외상사건, PTSD

* 이 연구는 이수정 교수의 지도하에 작성된 2011년도 이경화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Tel : 031-249-9199, E-mail : suejung@hanmail.net

경찰관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기본 임무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외상사건 경험 빈도가 매우 높다(이희선, 2012).

외상적 사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으로 경찰관, 소방관, 군인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제일선에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긴급하고 위협한 응급상황을 처리해야 하므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장감이 많은 직업 중 하나이며(Carlier, Lamberts, & Gersons, 1997; Kop & Euwema, 2001),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로 인해 질병의 발병위험이 증가 할 가능성 매우 높은 직업이다(Sely, 1984).

김종길(2012) 연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외상 사건의 빈번한 노출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이러한 장애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경찰관은 업무의 특성상 정신 건강에 해로운 외상을 유발하는 업무가 많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찰관들도 흉악하고 끔찍한 강력사건을 제일 먼저 접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수많은 죽음과 부상을 목격하거나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을 접하기도 한다. 홍창형(2005)연구는 자기관련 외상 경험뿐 아니라 타인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등의 외상경험 즉 간접 외상(vicarious trauma) 역시 PTSD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외상이란 동정적 피로(compassion fatigue), 공감적 긴장(empathic strain)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외상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Palm, Melissa A. Polusny, Victoria M. Follette,

2004). 일차 외상자의 경험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인간성의 추악한 뒤틀림과, 폭력, 공격성, 가학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왜곡된 대인관계를 보게 되고, 폭력과 희생의 뒤에 따라오는 수치와 공포, 슬픔, 경악, 고통,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¹⁾ 이 과정에서 일차 외상과 비슷한 증상과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 근심, 회피, 불면증, 증가된 무력감, 비정상적인 통제감, 타인의 동기에 대한 만성적인 의심, 적개심,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정신이상 감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 외상은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 등 사회적 상호작용과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Figley, 2002; McCann & Pearlman, 1990; Sloan et. al, 1994; Sprang, 1999; Stamm, 1997; Tiffany et. al, 2003에서 재인용).

Vincent(1999)는 경찰관이 경험하는 외상사건으로 동료,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심각한 부상을 경험, 공무 수행 중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심각한 부상을 경험, 많은 수의 사망사건을 다루거나 목격, 위험한 차량 추격,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경찰 특수부대(special weapon and tactics, SWAT)로써의 임무 수행, 인질범과의 협상, 동료의 부정 비리를 목격, 해고의 위협 등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직, 간접적인 노출은 결과적으로 건강문제와 심리적 위협을 증가시키고 PTSD의 증상과 관련 있게 된다(Stephens, Long, & Flett, 1999; Charles, Burchfiel, Fekedulegn, Vila., Hartley, Slaven, Mnatsakanova, & Violanti, 2006).

Ellen(2006)의 연구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외상 사건 노출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1) 외상성 스트레스란?, 대한외상성스트레스연구회, <http://www.kstss.or.kr/accident/001.htm>에서 검색

새로운 외상사건이 잊혀졌던 과거 외상 경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외상사건의 누적 경험과 PTSD증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27명의 뉴질랜드 경찰관의 다수의 외상 경험과 PTSD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경찰 입직 이전의 외상경험과 PTSD증상과는 관련성이 떨어진 반면 경찰 입직 후 외상경험이 더 많은 PTSD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Stephens & Miller, 1998).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강력계 형사들은 경찰관들 중에서도 끔찍한 상황을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 정서를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들과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 매번 범죄자들을 만나고 끔찍한 사건 현장을 목격하면 감정이 무뎠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인천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현직 형사가 말하였다. 사체가 절단되고 심하게 부패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 현장을 보고도 전혀 감정적 동요가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에 근무하는 형사 중 한명이 ‘오원춘 사건’을 경험한 한 후 사건 내용이 자꾸 떠오르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매우 괴롭다며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는 PTSD와 유사 증상으로 현직 경찰관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세계일보, 2012년 10월 6일).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 한 후 그들 중 일부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수면 장애나 죄책감, 무기력감,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근무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냉소적인 성향과 흑백논리의 사고체계로 인하여 사고의

유연성 떨어뜨려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이루지 못해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수준이다(한상암, 2005). 이러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은 스트레스의 완충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며 PTSD로 발전할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할 수 있다(하상군 등, 2012).

본 연구는 외상사건에 노출빈도가 높은 강력계 형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이들이 느끼는 충격정도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관들이 경험하는 내적 고통은 경찰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관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관들의 외상 스트레스가 만성화,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직적 차원에서의 치료적 개입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및 절차

경찰관들이 처리하는 업무의 순환보직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강력사건의 노출빈도가 높은 형사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 경찰청 형사과 근무자들과 ○○지방 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1년 8월 22일 연구자가 직접 ○○지방 경찰청을 방문하여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약 3주간에 걸쳐 226부가 회수

되었다. 그 중 부실기재로 응답이 신뢰롭지 못하다고 판단된 46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8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남성은 92.8%로 여성 6.1%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는 20대가 7.8%, 30대가 54.4%, 40대가 30.6%, 50대 이상은 6.7%로 나타났으며, 결혼 유무의 경우에는 기혼자들이 총 145명으로 80.6%를 차지하고 있고, 미혼자들이 35명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전체 180명 중 51명으로 28.3%이며 대졸이상은 총 127명으로 70.6%로 나타나고 있다. 계급은 순경이 44명(24.4%), 경장이 52명(28.9%), 경사가 46명(25.6%), 경위 33명(18.3%), 경감 3명(1.7%)으로 나타났으며 총 근무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은 49명(27.2%), 5년 이상~10년 미만은 32명(17.8%),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명(22.2%), 15년 이상은 57명(31.7%)으로 경력이 낮은 사람부터 경력이 많은 사람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설문에서 경찰관 재직 총 근무 기간 외에 형사과 근무경력을 물어보았다. 이에 55명(30.6%)이 2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64명(35.6%)이 2년 이상~5년 미만, 20명(11.1%)이 5년 이상~10년 미만, 39명(21.7%)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해주었다. 근무 부서의 경우 대부분 강력팀과 형사팀이 전체 73.3% 차지하였으며 그 외 과학수사팀, 광역수사대등이 포함되었다.

설문내용

기초 설문지에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 유무의 인적 정보를 묻는 질문들과 계급,

근무 경력, 근무 부서, 근무 부서에서의 업무 수행 기간 등 기초 정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다. 또한 외상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도 포함 되어 있다.

경찰들이 실제 사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외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의 인터뷰 및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 변인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재구성하여 직무사건 리스트를 만들었다. 총 20문항으로 경찰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일차 외상 사건으로 분류하였으며 외상 사건의 목격을 통하여 유발되는 스트레스 사건을 이차 외상 사건으로 분류하여 경험 유무, 외상사건 노출 횟수, 충격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문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차 외상사건으로는 근무 중 무기로 위협 또는 공격당한 경험(예: 흉기에 찔리거나 둔기로 맞은 경험 등), 근무 중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 근무 중에 심각한 차량사고 경험, 위험한 차량 추격전 경험, 자신 또는 가족이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예: 수해, 산불 등), 근무 중 타인에 대한 총기사용 및 총기 겨눔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차 외상 사건으로는 근무 중 목매 자살자의 사체를 목격한 경험, 근무 중 신체 훼손 및 절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 근무 중 부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 근무 중 의사체를 목격한 경험, 근무 중 불에 탄 사체를 목격한 경험, 근무 중 다수의 사체를 목격한 경험, 근무 중 아동의 사체(영아 포함)를 목격한 경험, 근무 중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한 경험, 근무 중 타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목격한 경험, 근무 중 동료의 사망, 근무

중 동료의 심각한 부상, 학대 받거나 방임 된 아동 목격, 근무 중 심각한 차량 사고 목격 등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가지의 외상의 경험을 묻는 문항은 ‘있다/없다’의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외상의 횟수는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2~5회, 한 달에 5~10회, 한 달에 10회 이상 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경험 사건의 충격정도를 묻는 문항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음, 약간 충격

적임, 보통임, 비교적 강한 충격, 매우 강한 충격임 등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 과

표 1은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N=180)에게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외상사건의 목록을 제시하고 경험의 유무에 대하여 최근

표 1. 6개월간 경험한 외상 사건 빈도에 따른 분류

최근 6개월 간 근무 중 경험 한 외상 사건	*빈도(N)	비율(%)
1. 근무 중 부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	146	81.1
2. 근무 중 목매 자살자의 사체를 목격한 경험	145	80.6
3. 근무 중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한 경험	139	77.2
4. 근무 중 신체 훼손 및 절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	125	69.4
5. 근무 중 아동의 사체(영아 포함)를 목격한 경험	100	55.6
6. 근무 중 타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목격한 경험	88	48.9
7. 근무 중 불에 탄 사체를 목격한 경험	87	48.3
8. 근무 중 익사체를 목격한 경험	82	45.6
9. 근무 중 심각한 차량 사고를 목격한 경험 근무 중	72	40.0
10. 다수의 사체를 목격한 경험	71	39.4
11. 근무 중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	69	38.3
12. 위험한 차량 추격전 경험	53	29.4
13. 근무 중 동료의 심각한 부상을 목격한 경험	52	28.9
14. 학대 받거나 방임 된 아동 목격한 경험	52	28.9
15. 근무 중 무기로 위협 또는 공격당한경험	32	17.8
16. 근무 중 동료의 사망을 목격한 경험	30	16.7
17. 근무 중 심각한 차량사고 경험	25	13.9
18. 자신 또는 가족이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24	13.3
19. 근무 중 타인에 대한 총기사용 및 총기 겨누는 경험	19	10.6
20.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예: 수해, 산불 등) 경험	14	7.8

*N= 중복체크 항목임

6개월 간 노출빈도가 높은 외상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경험한 외상사건은 ‘근무 중 부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으로 총 146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폭행당한 사람의 사체를 목격한 경험’(145명),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한 경험’(139명), ‘신체 훼손 및 절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125명), ‘아동의 사체(영아 포함)를 목격한 경험’(100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강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광경으로 형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근무 중 타인에 대한 총기사용 및 총기 겨눈 경험’과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예: 수해, 산불 등) 경험’에 대해서는 각각 19명과 14명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낮은 경험 빈도를 나타내는 외상사건임을 알 수 있다.

경찰관들은 제일선 사건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외상 경험들을 하게 된다.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며 부상을 입기도 하며, 차량을 이용한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차외상경험과 더불어 변사체를 목격하고 동료의 부상을 목격하는 등 이차적 외상사건 역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형사과 근무자들의 외상

경험의 유형을 구별하여 제시한 것으로 전체의 44.4%(80명)는 이차외상만을 경험하였으며 나머지 55.6%(100명)은 일차외상과 이차외상을 함께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 수행 중 다양한 형태의 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각 개별 사건들에 대한 충격정도를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후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충격정도가 높은 사건으로는 ‘근무 중 동료의 사망을 목격한 경우’($M=4.07, SD=1.143$)와 ‘근무 중 동료의 심각한 부상을 목격한 경우’($M=3.92, SD=1.111$)로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적 강한 충격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료의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목격하면서 이들은 함께 생활해오던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것처럼 상실감을 경험하며 더불어 자신도 그러한 위협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충격을 더욱 강력하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차외상사건 중에서는 ‘자신 또는 가족이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M=3.78, SD=1.085$), ‘심각한 차량사고 경험’($M=3.44, SD=1.003$), ‘무기로 위협 또는 공격당한 경험’($M=3.39, SD=1.223$) 등은 보통 이상의 비교적 강한 충격정도를 보이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근무 중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한 경험’은 노출 빈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충격정도($M=2.47, SD=.988$)로 충격정도가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강력사건에 비해 폭행사건은 형사과 근무하는 경찰관들 입장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미한 상태로 자주 발생하여 충격정도가 무더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6개월간 경험한 외상사건의 충격정도

표 2. 외상경험의 유형

외상 유형	빈도(N)	비율(%)
이차 외상만 경험	80	44.4
일차+이차외상경험	100	55.6
Total	180	100

표 3. 경험 외상사건의 평균 충격정도

경험 외상사건 충격정도		*빈도(N)	평균 (M)	표준편차 (SD)
일차 외상	근무 중 무기로 위협 또는 공격당한 경험	33	3.39	1.223
	근무 중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	71	3.00	.926
	근무 중 심각한 차량사고 경험	25	3.44	1.003
	위험한 차량 추격전 경험	52	3.19	1.049
	자신 또는 가족이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23	3.78	1.085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예: 수해, 산불 등)	12	3.00	.603
	근무 중 타인에 대한 총기사용 및 총기 겨눔 경험	17	2.94	.748
	이차 외상	근무 중 목숨 자살자의 사체를 목격한 경험	143	2.87
근무 중 신체 훼손 및 절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		123	3.25	1.068
근무 중 부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		146	3.20	1.035
근무 중 익사체를 목격한 경험		83	2.75	1.034
근무 중 불에 탄 사체를 목격한 경험		86	3.10	1.106
근무 중 다수의 사체를 목격한 경험		70	3.17	1.090
근무 중 아동의 사체(영아 포함)를 목격한 경험		98	3.21	.997
근무 중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한 경험		139	2.47	.988
근무 중 타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목격한 경험		87	3.03	.933
근무 중 동료의 사망을 목격한 경험		30	4.07	1.143
근무 중 동료의 심각한 부상을 목격한 경험		51	3.92	1.111
학대 받거나 방임 된 아동 목격한 경험		51	3.33	.887
근무 중 심각한 차량 사고를 목격한 경험		70	3.30	.953

*N= 중복체크 항목이므로 총 합이 180을 넘을 수 있음

의 평균값을 알아보기 위해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된 경험사건충격정도의 합을 경험한 외상사건 총 수 나누어 산출하였다. 충격정도의 평균값은 최하 1.00~5.00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3.029(SD=.802)이다. 산출된 평균값을 다시 ‘약한 충격’, ‘보통의 충격’, ‘강한 충격’으로 분류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

표 4. 외상사건의 충격정도 분류

경험 외상사건 충격정도	빈도(N)	비율(%)
약한 충격	65	36.1
보통의 충격	93	51.7
강한 충격	22	12.2
Total	180	100

표 5. 6개월간 경험한 외상 사건 총 수

외상사건 경험 총 수	빈도(N)	비율(%)	유효 퍼센트
1	6	3.3	3.4
2	14	7.8	7.8
3	10	5.6	5.6
4	14	7.8	7.8
5	12	6.7	6.7
6	12	6.7	6.7
7	24	13.3	13.4
8	18	10.0	10.1
9	6	3.3	3.4
10	11	6.1	6.1
11	11	6.1	6.1
12	7	3.9	3.9
13	10	5.6	5.6
14	9	5.0	5.0
15	5	2.8	2.8
16	3	1.7	1.7
17	5	2.8	2.8
18	2	1.1	1.1
Total	179	99.4	100
무응답	1	.6	
Total	180	100	

듯이 36.1%(65명)는 지난 6개월간 약한 충격을 경험하였으며 51.7%(93명)는 보통의 충격을, 12.2%(22명)는 강한 충격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이 느끼는 충격의 정도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는 지난 6개월간의 외상경험의 총 수를 나타낸 표로 외상사건을 평균 8.01(SD= 4.325)회 경험하였으며 1회에서부터 최다18회까지

다양한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18회 중 가장 많이 경험한 횟수는 7회로 전체의 13.3%(24명)가 이에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전체의 10%(18명)가 8회라고 응답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우선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외상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형사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사건으로는 근무 중 부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목매 자살자의 사체를 목격한 경험,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한 경험, 신체 훼손 및 절단된 사체를 목격한 경험 순서로 나타나 형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며 부상을 입기도 하며, 차량을 이용한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겪는 등 일차외상을 경험하기도 하며 더불어 번사체를 목격하고 동료의 부상을 목격하는 등 이차적 외상사건을 경험하기도 한다. 주로 이차외상을 많이 접하며 복합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와 같이 위험하고 자극적인 외상을 경험 한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데 충격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전체 180명 중 22명인 12.2%가 강한 충격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충격정도가 높은 사건으로는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의 사망을 목격한 경우와 자동차 사고 또는 범인체포과정에서 동료의 심각한 부상을 목격한 경우를 꼽았는데 이는 함께 생활해오던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것처럼 상실감을 경험하며 더불어 자신도 그

러한 위협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충격을 더욱 강도 깊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 업무에 대해 92.9%의 경찰관들이 위험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1.7%로 긴장되고 위험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동료 경찰관들이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는 응답을 얻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상경험과 강도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긴장감과 위기 상황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집단으로 소방직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위험하고 응급상황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더불어 충격적인 사고 현장에 대한 목격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음주 문제에 있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 음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음주문제는 우울증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김태우 등, 2010). 최근에 소방관들의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부적응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증상들이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오진환 등, 2006). 이전까지 외상으로 인한 PTSD에 대하여 업무 스트레스의 일환으로 개인이 이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으로 취급되던 것이 이제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일선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PTSD교육과 중재 프

로그램 개발에 힘쓰는 등 소방관들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국정원 감사 자료에서는 경찰관 14271명 중 5309명 즉, 26.9%가 PTSD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중앙일보, 2012년 10월 9일, 김종길, 2012에서 재인용) 또한 국내 선행 연구 중 신성원(2007) 연구에서 조사대상 경찰관들 중 38.8%가 PTSD 진단 집단에 속하였으며, 이희선(2012)연구에서는 25.5%가 진단 집단에 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PTSD 위험군이 보고되고 있으나 경찰 조직 내에서는 외상 사건 경험 후 이들이 겪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개인의 취약성으로 여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이를 다루려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김종길, 2012).

본 연구를 통해 경찰관들이 실제로 다양한 외상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충격정도에 대해 12.2%가 강한 충격을 경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처럼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찰관들이 체계적인 관리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일선으로 내몰리고 있어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외상 경험과 PTSD와의 관련성 및 PTSD 이외의 심리적 부적응 현상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PTSD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넘어 치료적 개입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 조직 내에서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데, 현재 경찰청 내에 PTSD에 관련한 상담채널을 개설해 놓은 상태로 조직 내에서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으나 단발성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헤럴드경제, 2013년 4월 3일). 경찰관들의 자살과 음주관련 문제, 가정의 파탄 등 위기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대처 교육 및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대처훈련이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길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5), 31-55.
- 김태우, 김규상, 안연순 (2010). 현장직 소방공무원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련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2(4), 378-387.
- 신성원 (2006). 경찰공무원의 일상적 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진환, 임난영 (2006). 소방대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진 및 신체적 증상의 영향요인 분석. *기본간호학회지*, 13(1), 96-106.
- 오성희, 박영신, 지영환 (2010).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관계 변인분석. *한국민간경비학회*, 15, 201-223.
- 오영탁 (2012년 10월 16일). 경찰, '오원춘 사건' 이후 말 못할 장애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016024567&subctg1=&subctg2=&OutUrl=naver>에서 검색.
- 외상성 스트레스란?, *대한외상성스트레스연구회*, <http://www.kstss.or.kr/accident/001.htm>에서 검색.
- 이희선 (2012). 경찰·소방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1), 57-70.
- 하상균, 김종길, 이준형 (2012).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국제해양문제연구*, 7, 199-225.
- 한상암 (2005). 경찰관 자살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요인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1(1), 339-360.
- 홍창형 (2005). 북한 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열 (2013년 4월 3일). 무의식 속 악몽의 상처...마음에도 '반창고'가 필요하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03000513&md=20130406004635_AP에서 검색.
- Bengt, B. A., Dana, C. N., Mark, A. L., Lena, B., & Ake, L. (2009). Trauma Resilience Training for Police: Psychological and Performance Effects. *Journal of Police Crime Psychology*, 24, 1-9.
- Ellen, K. M. (2006). Cumulative Career Traumatic Stress (CCTS): A Pilot Study of Traumatic Stress in Law Enforcement.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21(1), 62-1.
- Fogg, D. (2007). Vicarious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mong Child.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Paper 158.
- Gabriele, P., & Luca, P. (2010). Risk and

- Resilience Factors among Italian Municipal Police Officers Exposed to Critical Incidents.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25(1), 27-33.
- Kathleen, M. P., Melissa, A. P., & Victoria, M. F.(2004). Vicarious Traumatization: Potential Hazards and Interventions for Disaster and Trauma Workers.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19(1), 74-78.
- New Zealand Police (1998). *Attrition in the New Zealand Police: Proceeding of the Disengagement Summit*. Wellington: New Zealand Police.
- Schaefer, J. A., & Moos, R. H. (1992). *Life crises and personal growth*. In B.N. Carpenter (Ed.), *Personal cop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Westport, CT: Praeger.
- Stephens, C., & Mille, I. (1998). Traumatic experience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ew Zealand poli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1(1) 178-191
- Tiffany, W., Shannon, L., & Stephen, S. (2003). Factors Influencing Experienced Distress and Attitude Toward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0(4), 293-296.
- Vincent, J. M., & Roger, M. S. (1999). The FBI's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Program.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20-24.
- Charles, L. E., Burchfiel, C. M., Fekedulegn, D., Vila, B., Hartley, T. A., Slaven, J., Mnatsakanova, A., & Violanti, J. M. (2006). Shift work and sleep: the Buffalo Police health study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0(2), Issue 2 pp.215-227.
- 1 차원고접수 : 2013. 04. 16.
심사통과접수 : 2013. 05. 16.
최종원고접수 : 2013. 05. 27.

A Study on Traumatic Events of police officers in detective

Kyoung-Hwa Lee

Inchoen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Soo-Jung Lee

Department of Crimi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traumatic events and degree of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by police officer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in order to assess the traumatic event experienc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80 police officers in detective divisions in the provincial police agency and police stations in Ko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police officers were exposed to various traumatic event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primary and secondary traumatic events. In addition, 12.2% of 180 police officers strongly impacted by traumatic events. Therefore, the integration of stress management and critical incident management programs by Korean police organ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ensure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police officers.

Key words : *police officer, traumatic event, traumatic stress, PTSD*